

연중 제26주일

기도서 P. 447 C해

제1독서(아 모 6, 1. 4-7)
제2독서(딤토전 6, 11-16)
복음(루 까 16, 19-31)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바보들의 행진」

범 영 배 신 부

우리 민족의 역사속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의 일을 지키고, 민족을 위하여 일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 고려말의 정 몽주, 이조의 사육신(死六臣)과 이순신장군 등이 있었고, 가깝게는 일제하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의를 저버리고, 민족을 등에 업고 착취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득세하여 권좌에 앉아 가장 애국자인 것 처럼 우쭐했다. 이러한 작태는 지금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만 부지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큰소리 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주위에서 현실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헌신처럼 내던지고 지조없이 살며, "의리나 신의가 밥 먹여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의리나 신의를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한다. 현실의 이익을 위해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친구들을 현명하다고 칭찬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다.

오늘은 순교복자 축일이다. 하느님을 위해 자신에게 소중한 목숨마저도 내버리신 선조들을 기리는 날이다. 현실의 이익만을 찾는 친구들이 많아진 요즘은 더욱 순교하신 선조들의 용기와 신앙심이 부러워진다.

과연 현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 만연된 사람들이 순교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위해 목숨까지 포기한 순교자들이 바로 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보로 취급해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성세성사때 하느님께 서원한대로 살아야 한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바보취급 받지 않으려고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살고있지 않은지, 그래서 순교하신 선조들에게 바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직접 선조들에게 바보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바보라고 하도록 행동해서는 안된다.

순교복자 축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성세성사때 발한 서원을 상기하며 신앙생활을 되새기고 굳은 결심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내고, 부정한 것을 해서라도 자신의 배타를 누리고 편해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보기 싫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며 선을 행하도록 하고, 양심의 소리대로 살도록 하며, 천주교 신자이기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하느님을 위해 바보처럼 순교하신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도 하느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바보들이 되어야 하겠다.
(복자 천주교회 보좌신부)



자기 형제들 그물로 사냥하고

—이 나라 안에는 성실한 사람이 멸망하여 사람들 가운데 의인(義人)이라고는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피흘리게 하려고 잠복하여 저마다 자기 형제들 그물로 사냥하고 있으니, 그들은 민첩하게 손을 돌려 악을 행하고 왕자나 판관도 선(善)을 함당시고 뇌물을 요구하며 명사(名士)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설교한다. 그들 중 가장 낫다는 자가 가시덤불 같고, 의인이란 자가 가시울타리보다 더 악질이다. 너희는 네 이웃을 믿지 말고 절친한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너와 잡자리를 함께하는 여자에게도 네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기 때문이니 사람마다 그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미가7, 2-6).

흔히들 이 시대의 징표의 하나로 불신(不信)을 든다. 믿지 못하고 사는 시대라는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도자가 그를 따르는 백성을 속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왜 속이는가? 왜 거짓을 말해야 하는가? 눈앞에 앞 밝한 이익을 위해서이다. 돈을 다다 할 사람이 누가 있고요만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몇푼에 팔아버리기 때문이다. 감투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다.

순교자의 결단이 부럽다. 나는 누구인가? 순교정신을 배우는 복자성일이 벌써 다 지나고 있다.

숲 정이 산책





새로이 태어나면서

—성령세미나를 받고—

김 규 례 (베로니카)

밝고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피흘린 선열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작은 글을 씁니다.

제가 주님을 찾아 성당에 나간지 어언 5년이나 되었지만, 저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주님을 찾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오시는 주님을 진실되고 겸허한 몸과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미사만 참례하면 신자인양 한장의 성서도 읽지 못한채 성당엘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희 본당 사무장님의 권고로 1차 "성령세미나"를 받고 나서 저는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제마)을 받고 저도 모르게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저에게는 뭔가 모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기쁨의 전율이 온 몸에 감돌았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조명할 때 육적이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것들, 즉 어둠으로 가득찼던 내적인 상처 투성이들을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용서받고 치유 받아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 이제는 주님의 자유로운 딸이 되었습니다.

"성령운동"은 인생의 도(道)라 했습니다. 신앙을 생활화하면서 내 자신을 버리고 무질서한 마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깊고 높은 말씀에 순명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능력이신 주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 없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없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의식속에 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은총 속에 화목한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도 새롭게 느끼며 기쁘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신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능력이신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할 때 주님께서는 밝은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성서를 대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 안에서 진리·교훈·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서속의 말씀은 인간의 오만불순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성서 속에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길,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강론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메아리칠 때 우리는 "말씀의 자극"을 깊이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의 자극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는 신도로 일깨워주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새로운 탄생의 영광과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합류시켜 평화의 낙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죽은 신자)이 아니라 신앙인(산신자)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신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화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접촉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심을 갖읍시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자극을 받아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주님의 사업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또한 은사의 선물을 충만히 받아 공동체 안에서 활용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구사할 줄 아는 봉사적인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형식적인 자신, 형식적인 교회, 정제된 교회에서 동적이고 은혜로운 자신과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교회가 쇠신될 때 하느님이 주신 이 세계는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로움일 것입니다.

끝으로 단단했던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신 본당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천주교 노충동 성당)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최 남 수(아폴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각종 케빈·카페트·웅접셋트·실내장식 일괄

삼 성 인 테 리 어

주 이 종 화(바오로)

전화 ② 1330

(팔달로변 전화국 북편 송의과 옆)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유율리안나

“이 시대를 예언자적 자세로 살자”

박 기 준

9월은 순교자들을 위한 달이다.

특히 교구설정 50주년을 맞는 저희 교구에서는 5번째 맞이하는 순교자 현양대회를 다른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알차고 뜻있는 행사가 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자적 자세로 살자.”

이 말은 금번 저희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의 슬로건이다.

얼마전 숲정지에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면 예언자적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예언자란 장래의 일을 미리 예견하고 걸치는 결정이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예언자적 삶이란 “율법에 따라 현실 사회의 온갖 악과 부정을 폭로하고 하느님의 충고와 의지를 대변 선시(宣示)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출애굽기 4:16)

작년과 올해는 무수히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였고, 심지어는 공포의 분위기로까지 몰아 넣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순교자들의 거룩한 정신을 본받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언자적 자세로 사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언자적인 자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봤으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가?

우리 신자들 중 대부분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해 왔고, 또는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이 해야 할 일인양 방관해 오지나 않았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현실속에서 우리들이 예언자로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 험뎃고 굶주리며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도 형제애를 느낄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예언자적 자세로 살아간다고 몇몇하게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온갖 죄악과 불의를 보고 방관하는 자세는 우리가 예언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일까? 우리가 예언자적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억제해야 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분명히 닥쳐올 것이다.

우리는 다른 그 어느 때 보다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야 할 시대이다. 요즈음 한창 부르짖고 있는 새시대·새물결(?)이라는 슬로건에 대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루가 12, 8-10)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불의와 기만과 온갖 죄악의 베일을 벗기고 참 진리이신 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자.

(대전대학-교구출신 대신학생)

요셉이 (373) 김병오



사건자료 및 기계
칼라필림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5013 · 5011

임 금 님

◆ 오리표 · 백곰표 썬크
보청기 까스기구 일체

동남 종합 썬크주방

동남 의료 과학 상사
김 낙 균(요셉)
전화 3-6900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 · 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현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 산 · 부 기 · 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교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제 일 경 리 학 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담고약L · 우진파스

주효능 · 신경통 · 근육통
전통 · 운동전후

◎부이리진

주효능 · 식욕촉진 · 발육촉진
영양장애

우진제약(주) 전북사무소
소장 이용우(비오) 군산 ㉠578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5 차 순교자 현양대회...9월 28일 오전 11시, 순정이(해성학교 교정)에서
 2. 제 3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생 웅변대회...10월 12일, 서울 동성고교에서
 - ① 주제...“하느님과 나”(중등부), “하느님 백성의 일치”(고등부)
 - ② 참가 희망자는 현양대회(9월 28일)날까지 교구 평협으로 원고와 더불어 접수하시기 바람
 - ③ 원고 길이...200자 원고지 10매 이내(7분 이내)
 3.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복지성월 행사안내...① 치명자산 참배-9월중 매주 일요일 오전 6시까지 치명자산 도착 ② 9일 기도회-9월 20일~28일 매일 오후 5시까지 치명자산 도착

※ 단 28일은 순교자 현양대회 참여로 대체함.
 4. 제 6 지구 친선 체육대회...10월 3일(금), 진안성당에서
 - 전국 올드레아 참석 안내...10월 9일 오전 9시, 참가비-4천원
꾸르실리스타 회원은 회비 4천원을 준비 지구별로 행동(각 지구에서는 참석인원 교구 사무국에 통보)
 - 교구 평협, 상임위원 위촉 및 임원 명단(80년 9월 13일자)
 - ① 당연직 상임위원 교체 선임...이현재(L.M 꼬미시움 단장, 교구 평협 부회장 겸임)-L.M 임원개편에 따라서
 - ② 교구장 위촉 상임위원...양상열(덕진사도회장), 안득수(의사회), 김을태(약사회), 이홍재(전북대교수) 김정생(중앙 사도회 부회장)
 - ③ 임원...선교부장-김순성(중앙), 차장-김종표(중앙), 전례부장-임주택(중앙), 차장-김낙균(서학동) 봉사부장-노재두(순정이), 차장-박종걸(노송동), 재경부장-박순기(전동), 차장-박상기(복자), 교육부장-김병오(전동), 차장-김영준(중앙), 조직부장-전자색(농민회), 부녀부장-이길용(전동)
- 순정이 대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각 분당에서는 속히 납부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 정 협
 ③3874 보좌 신부 박 심 팔
 사도 회장 김 병 구

1. 성심부녀회 월례회 : 10월 3일(금) 어머니미사 후
2.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 2일(목) 오전 10시 30분
3. 사도회 월례회 : 9일(목) 오후 8시
4. 인성회 월례회 : 6일(월) 오후 8시
5. 분당 올드레아 : 28일 오후 2시
남·녀 꾸르실리스타는 모두 모임이다
6. 병자방문 : 8일(수) 오전 10시
7. 순교자 현양대회 : 해성학교, 11시미사(주교님 집전)
분당 10시 30분 공식미사는 없습니다

4. 첫 철레 7 : 4일 저녁미사
5.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 (목) 오후 3시
(김동준 신부 지도) 많이 나와서 배우시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 ※ 10월은 분당Pr을 육성하는 달입니다
모두 레지오 마리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다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특별안건 : pr육성에 대해서
사도회 임원 적극 참여 바람
 2. 올드레아 : 30일(화) 저녁 8시
 3. 처녀들을 중심으로 하는 pr희망자 예비모임
10월 1일(수) 저녁미사 후 8시
※ 희망자 신청 바랍니다
 4.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김재열·김낙원 신자들의 기도-십대미사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훈 민
 사도 회장 박 춘 근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성서 강의 : 29일, 30일 저녁 8시-9시까지
3.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요한복음 전체
5.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후아파트 레지오 마리아 : 매주(목) 오후 2시에
17동 104호에서 회합,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순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도

1. 순교자 현양대회 : 오늘 해성학교 교정에서
형제자매님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청년회 월례회 : 9월 30일
3. 유치원 소풍 : 9월 30일
4. 누갈다·부녀회 월례회 : 10월 4일
5. 사도회 월례회 : 10월 5일
6. 신협 이사회 : 10월 5일
7. 중·고생 누갈다 모지 참배 : 9월 30일
8. 예비자 교리안내 : 매주 공식미사 후
매주 (수) 오후 7시 30분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조 정 오
 사도 회장 양 상 열

1. 분당 축성 기념일 : 10월 3일
분당신부님배 친선 배구대회-당일
2. 학생미사 : 주일 오후 3시, 학생미사를 이용하세요
3. 주일학교 교리 및 미사시간 안내
교리-토요일 오후 3시, 미사-4시
4. 사도회 월례회 : 5일
각 분과위원장 및 차장은 꼭 참석하세요
5. 혼인을 원하시는 분은 1개월전에 분당신부님과 면담
6. 평신도 주일 : 10월 5일 강론-선교위원장님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병 임
 보좌 신부 김 기 석
 사도 회장 유 수 중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2. 사도회 : 다음주(10월 5일) 공식미사 후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조 성 호

1. 10월은 로살리오 성월
2. 10월은 전교의 달 : 19일은 전교주일(특별헌금 있음)
3. 복자부녀회 월례회 : 1일 오전 10시
사정에 의해 10일(수) 오전 10시로 연기합니다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명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사도회 월례회 : 10월 5일
2. 부녀회 월례회 : 10월 첫주
(9월 마지막주일 못한 관계로)
3. 유아세례 : 10월 5일 오후 3시미사 후
4. 성모 기사회 : 10월 4일 오후 2시